



나는 어디에 속할까?

우리가 사는 이 분열된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이 커지는 것에 대한 답이 있을까?

성패트릭이 이 땅을 걸은 지 거의 **1600**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아일랜드는 분열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성패트릭 역시 노예로 거래되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외로움과 고립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산감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땅에서 쫓겨나고, 집과의 모든 연결이 잔인하게 끊어졌고, 이런 상태가 몇 년 동안 지속되었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탈출하여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온 성패트릭은 이 해안으로 돌아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고립감과 그가 속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소속감의 비결을 찾았습니다.

비에 젖은 들판의 외로움 속에서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소속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했습니다... 그는 나를 보호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하는 것처럼."

소속감에 대한 얼마나 풍부한 설명인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하는 것과 같이"

그때의 해결책은 지금의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속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다른 모든 소속에 대한 갈망 아래에 깊이 자리 잡은 소속감입니다. 소속에 대한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은 그분 안에서 안식처를 찾습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깊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무슨 일이 일어났든 일어날 것이든 우리가 그분께 속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다른 모든 것에 직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태어났지만 성패트릭처럼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깊은 수용과 소속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서로 다른 배경, 문화, 이야기에서 모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변화시키는 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로 만듭니다. 그것이 성패트릭이 경험하고 깨닫게 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는 하늘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깨진 부분이 치유되는 장소이자 모든 배경, 문화, 이야기에서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외로운 세상에서, 여기에 당신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환영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패트릭의 기쁨은 "수천 명의 나의 형제 자매들"이었고,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당신도 그 가족에 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